"세계에 K-소리 르네상스 펼칠 것"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프로그램 발표회서 밝혀… 9월 15~24일 개최

"지금이 국악·판소리 르네상스가 펼쳐질 적기입니다."(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각국의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9월 15~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호주·캐나다 등 해외 13개국이 참여, 89개 프로그램, 105회 공연에 나선다.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은 5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K-팝, K-무비, K-클래식까지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시기"라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K-소리, 전통음악이고 국악이며,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국악 르네상스에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세계적으로 소리를 상징하는 축제가 되도록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대표 축제이자 메카로 발돋움 하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성공적 축제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예술분과위원회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을 강화했다.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 5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음악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음악과 예술이 교류하는 축제"라며 "한국에서 무용유산 가장 많은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했다.

올해 축제는 '상생과 회복'을 키워드로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문을 여는 해인 만큼 음악으로 새롭게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연극 '두 영웅' 8일 소리문화전당서 개최

남원 출신 노경식 극작가의 등단 50주년 기념 작품인 연극 '두 영웅'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으로 오는 8일 연지홀에서 막이 오른다.

이에 따르면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1604년 8월 강화 협상을 위해 일본에 탐적사로 파견된 사명대사가 8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며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국익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무대에서 재연한 연극이다.

특히 이 작품은 양국의 두 영웅 사명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결구도를 단순히 두 사람만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왜란 전후의 양국 관계를 화두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현재의 한일관계에 시사한 바가 크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예스러운 무대와 의상, 고풍스러운 단어와 억양들은 오랜만에 공연계에서 정통 역사극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개막

우수사례상 24개 선정 수상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가 5일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 이날 개막식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백옥선)는 이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지역문화재단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한 총 24개의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업·정책을 발굴하고자 전국 119개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공모해 문화매개, 지역소생, 문화기획, 재원조성, 문화협치, 문화향유 등 6개 분야에 24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문화발전상을 수상한 창원문화재단의 '프로젝트 '창수를 찾아서'는 창원시 마산에 위치한 '창동'을 재조명하고 되돌아보며, 다양한 세대와 청년들이 모여 도서와 전시회, 창작뮤지컬 '장수책방'을 제작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세대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창의적 도전상을 수상한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고창 청소년 생태예술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 가까운 생태공간과 예술교육 활동에서 찾아 한 분야의 뛰어난 영재가 아닌 다양한 사물과 지식을 융합하는 문화영재를 꿈꾸는 프로그램이다.

장관상을 수상한 2개 프로그램은 문화협치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은 담양군문화재단의 '2022 담양아트투어리즘'이,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은 김해문화재단의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예술인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지원체계 예술인 지원 사업 '불가사리'가 각각 선정됐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춘천문화재단의 제도권 안팎 매개공간의 쓸모 확장 '네 개의 접점과 그 너머'가, 또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상은 평택시문화재단의 안정리예술인광장 및 팽성아트캠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이 선정돼 지역문화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지역문화 우수사례는 18개 재단의 사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수상을 한 24개 재단은 박람회 기간 중 상설 전시관 부스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백옥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3 대한민국문화재단 박람회'는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며, 사회혁신의 중요자원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라며 "전국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백가쟁명의 장, 지식공유의 장 등 지역문화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예술인 신청대행 서비스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도내 예술인들의 기본 행정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신청대행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발표된 개정안은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의 일괄 연장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면제 △예술활동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0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 수는 5,664명으로 재단이 대행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에 비해 4,268명이 증가한 수치다. 인구대비 활동증명 예술인수 비율로는 전국 3위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8년 재단에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설치했다.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더불어 재단은 보다 많은 도내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사업의 수혜대상으로 기본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도내 미등록 예술인을 위한 신청대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내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예술인들은 재단 5층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 및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미디어아트전-공허함의 물질성'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미디어아트전-공허함의 물질성'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전시프로그램 제공자를 매칭하고 전시·기획·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전시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836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에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평일(주말제외) 2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소리의 물질성'을 주제로 조소와 예술공학을 전공한 서정자 작가와 물리학과 예술공학을 연구한 송은성 작가의 미디어아트 2인전으로 음악과 영상 및 설치작품이 융합되어 각각의 형상화된 소리를 감상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2회 작품 해설 및 관객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3년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5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공모를 통해 도내 기초문화재단과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단체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운영단체는 기초문화재단인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등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소는 참여자 모집 단계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각 운영단체마다 상이하다.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13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7월 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